



약력
출생 1890. 4. 26
사망 1957. 10. 10
학력 와세다대학교

경력
1907 신문관 설립
1908 종합 월간지 소년 창간
1919 3.1 운동시 독립 선언서 기초
1922 신문관 폐관. 동명사 설립, 주간지 동명 발행
1924 시대일보 창간, 사장 취임
1927 총독부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
1939 건국대학 교수
1943 도쿄 재일조선인 유학생 학병지원 권고 강연
1949 친일 반민족 행위로 기소, 병보석 석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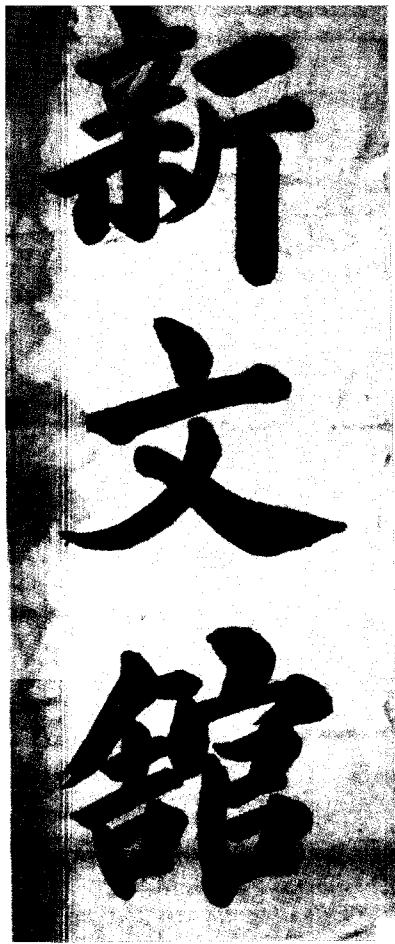
일본에서 직접 활판인쇄기 들여와 신문관 운영 근대잡지 소년 매달 2500부 발행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최남선과 출판 사업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은 관상감에 다니던 최헌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중인 출신인 최헌규는 관상감의 기감을 거쳐 학부의 학무국장에까지 오른다. 능력있는 아버지 덕분에 최남선은 개화 문명을 일찍 접할 수 있게 된다.

1902년 일본인이 경영하는 경성학당에 입학하여 일본어를 배우게 된다. 1904년에는 황실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도쿄부립중학에 입학했으나 3개월만에 귀국한다. 17세 때인 1906년 3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고등사범부 지리역사학과에 입학하여 유학생회보인 <대한흥학회보>를 편집, 시와 시조를 발표한다. 그러나 1907년 모의국회 사건으로 퇴학당하여 1908년 귀국하게 된다.



신문관은 한말의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와 더불어 신문화(新文化) 운동의 한 모태가 되었다. 1층은 신문관, 2층은 민족운동의 진원지였던 조선광문회로 사용되었다. 사진은 활리기 직전인 1969년 모습
신문관 현판회호. 유리액자에 넣어 걸었던 듯 빛물이 새어들었다. 최남선의 아들 최한인의 유물이다.

최남선은 1905년에 이용익이 일본에서 많은 도서와 인쇄 기계를 구입해 귀국해 보성학교(普成學校)와 보성사(普成社), 보성관(普成館)을 설립한 것을 보고, 자기도 귀국하여 문화운동을 일으켜 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도쿄에서 제일 큰 인쇄사인 수영사(秀英社)에서 활판인쇄기, 자모기, 제판, 식자시설 등을 들여온다. 최남선 자신도 도쿄에 있는 동안 실제로 수영사에 드나들면서 인쇄 기술을 습득했고, 서울에 공장을 설치한 후에도 바쁠 때마다 직공들을 도와서 직접 식자 조판 또는 주자도 하곤 했다고 한다.

최남선은 1907년 신문관(新文館)을 설립하고 인쇄와 출판업을 시작한다. 당시 인쇄사는 상호명에 관이란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신문관은 전 내부부 자리에 있던 2층집을 빌려서, 2층은 편집실 아래층을 사무실로 하여 출범하였다. 그 건물이 협소했기 때문에 공장은 그 옆에 따로 집을 얻어서 설치하였다. 그 사호는 새로운 문화를 보급시킨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었다. 이러한 신문관은 당시 한국에서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완벽한 출판사였다. 신문관 터는 당시 '웃보시꼬지'라고 불렸던 곳으로 현재는 을지로 2가 21번지 중소기업은행 본점 뒷골목이 된다.

인쇄기술의 발달과 인쇄사

인쇄기를 가져온 도쿄의 수영사는 슈에기샤라 읽는데, 사쿠마 데이이치가 1876년 창립한 인쇄회사였다. 1870년~80년대에 걸쳐 일본 최대의 활판인쇄사로 신문 인쇄, 출판 등의 저널리즘 사업에 공헌했다. 석판, 평판기로 그라비어 인쇄를 처음으로 인쇄하기도 했다.

두번째 슈에기샤의 공장은 1895년에 준공된 것으로 일본 건축물에 있어서 최초로 철골이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건물은 프랑스에서 철골 구조의 실체를 보고 철재를 구입해서 1890년 귀국한 호소다니 야스다로(細谷安太郎)의 고

안과 조선기사(造船技師) 와카야마 겐기치(苦山鉉吉)의 설계로 지어진 것이다.

세번째 건물은 1910년 봄에 착공 1911년 11월에 준공된다. 전부 철골 붉은 벽돌조로 세워졌으며, 당시로는 최신행 공장형 건축물이었다. 최남선이 수영사를 방문한 것은 두 번째 공장으로서, 수영사에서는 새 건물과 새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최남선에게 인쇄기를 처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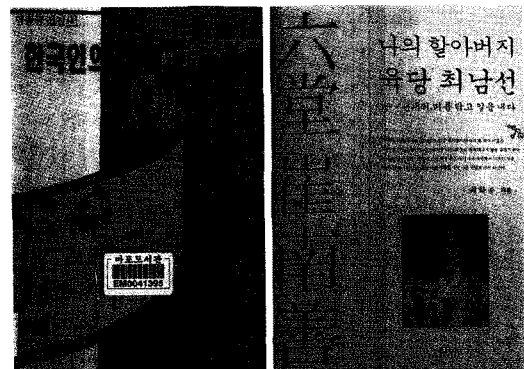
최남선의 출판활동

육당은 1908년 11월 신문관에서 <소년>을 창간한다. <소년>은 근대적 종합잡지의 효시이며 '해에게서 소년에게'란 시가 그 잡지에 실린 날이다. 후에 이 잡지가 창간된 11월 1일이 우리나라 '잡지의 날'로 정해졌다.

당시 <소년>은 매월 2천부 내지 2천5백부를 발행했으며 이것이 매진되어서 책방에 책이 없을 때가 허다했다고 하는데 그 무렵 신문의 발행부수가 한껏 많아야 1천부여서 잡지 2천부 발행은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부수였다.

이렇게 해서 소년은 1908년 11월부터 1911년 1월까지 4년동안 23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발행은 순탄치 않았다. 압수 발매금지선 빈번해서 특하면 신문에 판금처분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해야만 했다.

신문관은 <소년>이외에도 <청춘>을 비롯해 어린이잡지 <붉은 저고리>, <아이들 보이>, <새별>이 씩없이 발행했다. 그 밖에도 여러 기획 총서와 문고본, 한국학 명저와 학술? 종교 도서 및 교양서, 독본과 학습서, 어학 총서, 한국어 사전, 한국과 중국의 고전 소설, 그리고 서양 번역 소설이 신문관에서 편찬되었다. 그러나 신문관은 1922년 폐관되었으며, 1969년 헐려 지금은 그 모습조차 찾을 길이 없다. ☹



한국인의 생활과 풍속(하)
나의 할아버지 육당 최남선

저자_민족문제연구소 출판사_아세아문화사
저자_최학주 출판사_나남